

恨과 그리움 쌓여가는데... '슬픈 세월' 한없는 기다림

진도 팽목항과 체육관은 지금

방파제엔 한가로운 낚시꾼들...추모객 줄고 적막 10명의 실종자 가족 "돌아오라" 애절한 외침만

“세월호 얘기는 이제 지겹다”는 말 한 마디, 가족들 가슴에 비수로 꽂히는 줄 아십니까.”

6개월째 바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가족이 어서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가 던진 말은 팽목항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팽목항 곳곳에 붙어 있는 노란 리본 속 ‘별이 된 아이들의 몸속에 당신은 무어라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에 도 유족들의 심정이 녹아있었다.

가을로 접어든 쌀쌀한 날씨 탓이었을까. 15일 찾아간 진도 팽목항은 적막감만 가득했다. 방파제에 놓인 국화꽃은 향기를 잃었고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 둔 신발과 옷가지엔 6개월이라는 시간의 때가 묻었다. 수학여행 간다며 부모에게 손을 들고 떠났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에서 영영 떠나간지 6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참사를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곳곳에 추모 분위기에 젖어 있을 것 같았던 팽목항은 사뭇 달랐다. 노란 리본이 큼지막하게 붙여져 있던 팽목항 방파제 등대, 실종자 가족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향해 “돌아오라”며 끊임없이 외쳤던 곳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지점에서는 한가로워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이 눈에 띄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찾아오곤 했던 팽목항 방파제에서 추모객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체육관도 고요하기만 했다. 자원봉사자 수도 대폭 줄어들면서 적막감을 보였다. 체육관 사용 문제로 실종자 가족과 진도 군민대책위 사이 줄다리기도 여전한데다, 장기간 이뤄진 수색 활동에도 실종자

를 찾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날씨만큼이나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도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체육관의 모습도 바뀌고 있었다. 온통 세월호 대책을 논의하는 데 쓰였던 체육관 내 사무실에는 최근 ‘진도군 체육회’라는 명패가 다시 걸렸다. 각종 종교 단체·자원봉사·의료진용 천막과 밥 차, 빨래 차 등으로 가득찼던 체육관 주변은 종교 단체 천막과 밥 차, 빨래 차 등 꼭 필요한 시설만 남아 있는 상태.

10가구의 실종자 가족들은 난방도 되지 않는 체육관 시멘트 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담요와 이불을 겹겹이 쌓아놓고 날씨의 변화를 견뎌내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면서도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힘이 난다고 한다. 하루 평균 10명 남짓의 자원봉사자들은 빨래, 식사, 청소 등 수습까지 몫을 적극 해내고 있다.

침수 생일도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보낸 유영희(여·70·인천)씨는 세월호 참사 이틀날부터 현재까지 20번 이상 진도에 내려와 실종자 가족들 곁을 지키고 있다. 유씨는 “이불이라도 자주 빨아서 대 드리는 것 말고는 도울 게 없어 마음이 아프다. 이곳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 황지현(17)양을 기다리는 신명섭(여·49)씨는 “계절의 변화, 성과 없는 수색, 끝없는 기다림... 모든 게 가족을 힘들게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세월호 얘긴 이제 그만 지겹다’는 그 한마디”라고 말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노란 리본에 써진 메시지.



말 사진 보여주는 아버지.



세월호 참사 6개월을 하루 앞둔 15일, '어서 오세요'라고 적힌 풍선 뒤로 진도 체육관이 유난히 적막해 보였다. /진도=백희준기자 bhj@

4층 선미 다인실 1곳 수색 안돼...당분간 수색방법 변화는 없어

수색 현황과 향후 일정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향후 수색 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직 수색하지 않은 공간이 있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수색 여건이 나빠질 지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5일 세월호 참사 범정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층 선미 다인실 4곳 중 1곳에 대한 수색이 이날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침몰 당시 세월호 선미 부분이 바닥에 고꾸라지듯 처박혀 이불과 베게, 자판기 등 부유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려 수색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게 대책위원회 설명이다.

대책위는 현재 해경 20명, 해군 44명, 소방 4명 민간(88수중개발) 40명 등 총 108명의 잠수사가 하루 4차례의 정조시간(2시간)에 맞춰 교대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은 4층 선미 다인실 뿐만 아니라 앞서 점검한 곳이라도 마지막 1명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듭 수색에 나서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수색 장기화로 겨울철 대비 수색 계획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범대본 측은 그러나 당분간 수색 방법에 변화를 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범대본 관계자는 “겨울철 수색 계획과 일정, 방법 등을 현재 검토 중이지만, 당분간 수색 방법에 변화는 없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색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간 잠수 전문가들의 경우 한겨울에도 잠수 수색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

상했다. 바닷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는 ‘드라이 슈트’ 등 잠수 장비가 좋아져 겨울에도 물때만 좋다면 잠수요원들이 세월호 구석구석을 살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현재 수온(21~22도)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고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 잠수 시간과 횟수 등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잠수 경력 20년의 한 민간 잠수사는 “한겨울에도 잠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건 수색에 나서는 잠수사와 정부의 의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제 진도 군민에 돌려주길”...“아이들 놔두고 어디로 가라고”

체육관 사용 가슴아픈 줄다리기

“이제 그만 진도체육관을 군민에게 돌려달라.”, “진도 저 깊은 바닷속에 내 아이가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속하다고 해야 할까. 이해해달라고 해야 하나.

진도지역민과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감정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6개월이 되도록 함께 슬퍼했지만 지역 수산물 기피 현상과 관광객 감소가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면서 그동안 약간의 틈이 생기더니 진도 실내체육관 사용 문제를 두고 이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줄다리기는 여전하다.

진도군민대책위 측은 조만간 실종자 가족 대표와 만나 기한과 장소를 정해 자리

를 옮겨 줄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5일 재차 밝혔다. 군민대책위는 실종자 가족들이 체육관을 비우게 되면, 추모 분위기에 젖어 뜬했던 관광객도 찾아오게 되고 체육관에서 행사도 치를 수 있게 돼 진도가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체육관을 찾은 군민대책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유일한 군민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체육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1일 실종자 가족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군민대책위 등 3자가 만나 ‘진도체육관 대한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하는 안에 합의 한 뒤로 2차례 더 협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실종자 가족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베의

철 변호사가 서울로 옮겨간데다 학생·교사·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실종자 가족들이 일찌던 방안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구조인 탓이다.

지역 주민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팽목항 선착장에서 만난 조명용(75)·허영자(여·74)씨 부부는 “세상에나 오죽 불쌍한 사람들 아닌가, 자식을 눈뜨고 잃었는데, 여태 찾지도 못한 게 저 사람들 아니냐”고 하며 울먹였다.

반면, 읍내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영숙(여·53)씨는 “(실종자 가족들이) 딱하긴 딱하지. 그런데, 진도가 무슨 죄야. 참사 이후 관광객도 뚝 끊기고 체육관서 제대로 된 군민 행사도 한 번 치러보지 못하고, 가족이 이제 그만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백희준기자 bhj@

앵커 김주하 폭행한 남편 징역형

○~부부싸움 도중 부인인 김주하(41)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도(43)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지난 2010년 6월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김씨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 /연합뉴스



15일 진도 팽목항 방파제 주변이 한적하기만 하다. /진도=김형호기자 khh@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공동 투자자 모집

- 1억원 이상
- 연 수익률 20%이상 보장
- 소유권/근저당 으로 보장